

애그플레이션(agflation) 우려와 시사점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강명구 (mgk101@kdb.co.kr)

- ◆ '23년 '슈퍼 엘니뇨(very strong El Niño)' 발생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, 러시아의 '흑해곡물협정' 탈퇴로 애그플레이션(agflation) 우려 확대
 - 주요 곡물 생산국의 가뭄과 홍수 지속에 따른 생산 저하로 수확량 감소, 러시아의 '흑해곡물협정' 탈퇴로 수출량 감소 전망
- ◆ 한국은 대부분 곡물의 자급률이 낮아 슈퍼 엘니뇨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인한 애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해 곡물 공급 관리가 필요

□ '23년 '슈퍼 엘니뇨(very strong El Niño)* 발생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,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애그플레이션(agflation)** 우려 확대

- * 엘니뇨 감시구역인 Niño 3.4 지역(북위 5°~남위 5°, 서경 120°~170°)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2°C 이상 높은 경우로 지금까지 1982~83년, 1997~98년, '14~'16년 총 3회 2°C 상회
- ** 농업(agriculture)과 인플레이션(inflation)의 합성어로,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

- 엘니뇨* 발생→농작물 생산 저하→생산량 감소→수출 감소→가격 급등의 경로를 통해 애그플레이션 발생 가능
 - * 미국 국립해양대기청(NOAA)은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+0.5°C 이상이면 엘니뇨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며, '23.5월 들어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+0.5°C를 상회
 - 기온 상승으로 토양 생태계 교란, 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*로 수확량 감소
 - * 지구의 평균 기온이 1°C 상승할 경우, 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10~25% 증가(WEO)
 - 엘니뇨가 발생한 기간의 글로벌 곡물 생산 감소 비율(전년 대비, %) : 1987년→△3.8, '02년→△3.1, '10년→△2.0, '15년→△1.6
 - '14~'16년 발생한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'15년 주요 곡물 수출은 전년 대비 밀 △1.8%, 쌀 △4.0%, 정제설탕 △3.7%('14년)
- 러·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'23.7.17일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* 탈퇴에 따른 곡물 수출량 감소로 가격 상승 전망
 - *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과 비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 협정으로 우크라이나는 해상으로 연간 3,200만t 이상의 곡물을 수출
 - 7.27일 국제 곡물가 상승률(% , 14일 대비) : 소맥 8.0, 옥수수 5.5, 대두 2.0
 - '22.2월 러·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곡물가는 러시아의 흑해 봉쇄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방해*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 제한**으로 급등하였으나, '22.7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참여 이후 하향 안정세로 전환

* '22년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 수출량 증감율(% 전년 대비) : 보리 △62.1, 호밀 △61.2, 밀 △44.1

** '22년 러시아 주요 곡물 수출량 증감율(% 전년 대비) : 보리 △70.6, 밀 △35.3, 옥수수 △28.5, 대두 △20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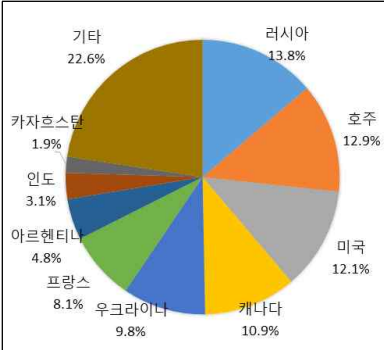
· '22.6월 국제 곡물가(% '22.1월 대비) : 소맥 32.6, 옥수수 18.7, 대두 16.3

· '22.7월 국제 곡물가(% '22.6월 대비) : 소맥 △19.5, 옥수수 △17.3, 대두 △16.4

□ 주요 곡물 생산국의 가뭄과 홍수 지속에 따른 생산 저하로 수확량 감소,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 등으로 글로벌 수출량이 줄어들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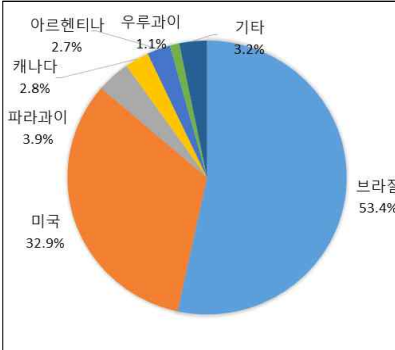
- 북미, 남미, 프랑스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은 이상고온에 따른 가뭄이 지속되어 결실 부족 등으로 수확량 및 품질 저하로 수출 감소 전망
 - 미국의 옥수수 및 대두 주요 생산지인 중서부지역(콘벨트), 캐나다의 소맥 생산지인 앨버타와 서스캐처원이 6월 중순 이후 가뭄 지속에 따른 토양 수분 (soil moisture) 부족으로 농작물 생장이 저하되어 수확량 감소 우려
 - 남미 주요 곡물 수출국인 브라질, 아르헨티나 등은 수확기 및 파종기의 홍수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수출에 영향을 줄 전망
-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제 곡물시장 수출 비중으로 볼 때, 러시아의 '23.7월 흑해곡물협정 탈퇴에 따른 수출량 감소는 곡물 가격 급등 요인이 될 전망
 -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산 곡물 수출량 비중(% '21년) : 소맥 23.6, 옥수수 14.0, 대두 1.3

글로벌 소맥 수출 국별 비중('2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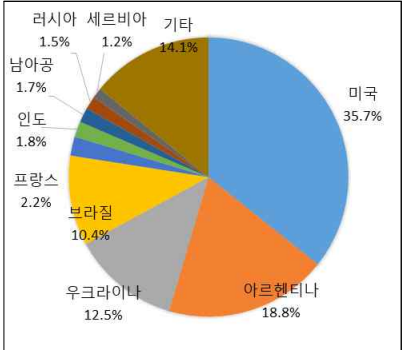
자료 : FAO

글로벌 대두 수출 국별 비중('21)



자료 : FAO

글로벌 옥수수 수출 국별 비중('2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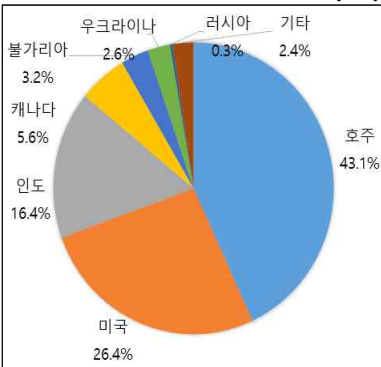
자료 : FAO

□ 슈퍼 엘니뇨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인한 애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해 곡물 수급 관리가 필요

- 한국은 쌀, 서류(고구마, 감자) 등 일부 곡물을 제외한 대부분 곡물의 자급률이 낮아,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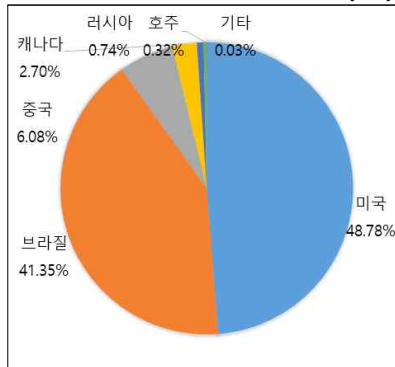
- 한국의 '20~'22년 평균 곡물자급률*은 19.5%로 OECD 중에서 최하위권에** 위치
 - * 사람과 가축이 먹는 식량(사료 포함) 가운데 자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율
 - ** 주요국 '20~'22년 평균 곡물자급률(%) : 호주 327.9, 캐나다 173.3, 미국 121.3, 중국 91.9, 일본 27.7
 - '21년 한국의 곡물자급률(%) : 소맥 0.7, 옥수수 0.8, 대두 5.9, 보리 31.3, 쌀 84.6, 서류 94.2 등
- 특히,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, 대체수입처 모색 등을 통한 곡물 수급 관리가 필요
 - '22년 한국의 對러·우크라이나 합산 곡물 수입 비중(%) : 옥수수 13.7, 소맥 2.9, 대두 0.75

한국의 국별 소맥 수입 비중('2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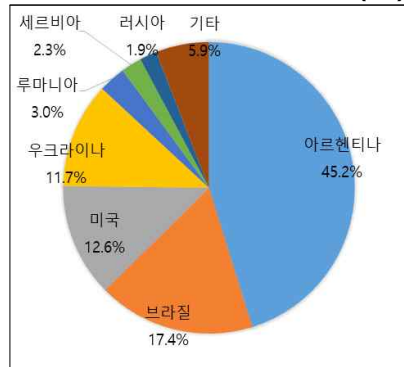
자료 : trademap

한국의 국별 대두 수입 비중('22)



자료 : trademap

한국의 국별 옥수수 수입 비중('22)



자료 : trademap